

■ 2025년 글로벌 경제 ·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 01

I. 머리말

II. 글로벌 경제 ·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1. 2025년 세계경제: 주요국 정책전환에 따른 하방 리스크 상존
2. 미 · 중 전략경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변동성 확대
3.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심화
4. EU의 통상규제 강화
5.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6. 디지털 플랫폼과 AI 관련 규제 확대
7. 세계 기후통상정책 갈등 격화

■ 주요 통상일지

| 07

■ 2025년 세계 주요 경제 · 정치 일정

| 09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흔들리는 다자무역체제와 자유무역 기조 등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광장의 산하기관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을 면밀히 파악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한데 모아 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CONTACT

I. 머리말

2025년 세계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자국우선주의 정책의 강화는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도 기존 국제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동시에, 디지털 경제와 AI의 부상은 기존 통상규범의 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은 미국의 정책변화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에서도 글로벌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며 기업들에게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전환을 요구할 것입니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2025년 전개될 세계 경제·통상 환경에서 주목해야 할 7대 이슈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직면할 과제와 기회를 균형 있게 조망하고자 합니다.

II. 주요국의 첨단기술 관련 수출통제 정책

1. 2025년 세계경제: 주요국 정책전환에 따른 하방 리스크 상존

2025년 세계경제는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별로 다른 수준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경제가 2년 연속 5% 미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의 저성장 국면 진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계무역 역시 2024년에 보였던 성장률이 202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지경학적 블록 형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새로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반정책들을 전환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주요국 정책들도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는 세계경제와 무역의 성장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선진국경제성장 견인, 중국경제 연속해서 5% 미만 성장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세계경제, 선진국경제, 개도국경제가 각각 3.2%, 1.8%,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4년 경제성장률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2025년 선진국 경제성장 전망의 내면을 살펴보면 미국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유로지역 경제는 미국보다 훨씬 낮은 1.2%(독일: 0.8%, 프랑스: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MF는 중국경제가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4.8%,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경제가 2년 연속해서 5% 미만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중국경제가 장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시사한 것이다. 한편 IMF는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와 반도체 및 전자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의 경제성장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주요국의 거시경제, 구조조정 및 무역정책 전환이 세계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 강화로 세계무역의 파편화 심화 전망

2024년 세계무역의 총규모는 전쟁, 미·중 통상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러한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MF는 세계무역의 흐름이 지정학적으로 구성된 블록의 내부 국가간 교역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025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



원장 박태호

T: 02.6386.6680

E: taeho.bark@leeko.com



고문 최석영

T: 02.6386.6620

E: seokyoung.choi@leeko.com



고문 이태호

T: 02.772.4396

E: taeho.lee@leeko.com



외국변호사 정기창

T: 02.772.5904

E: kichang.chung@leeko.com

세계무역의 파편화가 심화되고 그로 인해 세계무역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IMF는 2025년 세계무역이 3.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세계무역기구(WTO)는 3.0%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기구 모두 주요국의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세계무역성장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IMF는 미·중 무역갈등이 무역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사점과 대응전략

- 미국의 중국경제 강화에 대비하여 2025년 경제성장이 비교적 높게 전망되는 지역인 인도(6.5%), 필리핀(6.1%), 인도네시아(5.1%), 말레이시아(4.4%), 사우디아라비아(4.6%), 아르헨티나(5.0%), 에티오피아(6.5%) 지역으로 우리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수립 필요
- 지정학적 블록 형성이 진행되면서 블록 간 무역은 줄고 블록 내부 국가간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나치게 높은 대중국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핵심 광물, 부품, 장비 등의 공급원을 다변화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변호사 주현수

T: 02.6386.6363
E: hyunsoo.joo@leeko.com



변호사 박정현

T: 02.6386.6649
E: junghyun.park@leeko.com



연구위원 허난이

T: 02.6386.6451
E: nyhur@leeko.com

2. 미·중 전략경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변동성 확대

미국의 대중 압박과 중국의 맞대응

미·중간 전략경쟁이 2025년에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갈등은 각국의 경제안보, 공급망, 산업경쟁력, 무역·투자 정책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가 강화되고 중국의 맞대응도 예상되면서 국제통상환경의 변동성은 극대화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관세 부과를 공언하고, 중국에 부여했던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PNTR)의 철회도 시사했다. 또한 멕시코 등 제3국을 통한 중국의 우회수출의 차단도 공언했다. 중국제품의 미국시장 접근 차단을 비롯하여 첨단기술 수출통제, 투자 제한, 강제노동 규제,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을 추진하면서, 중국발 공급과잉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주, 양자컴퓨팅, 바이오, 정보기술, 전기차, 로봇 등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미래 첨단산업에 있어 대중국 탈동조화(decoupling)를 추진할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대미국 관세보복, 핵심 원자재의 수출통제 및 외국인 투자규제를 통해 대항하면서도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 타협을 모색하는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또한 자국 기업 경쟁력향상을 위한 보조금 지원, 내수확대를 위한 개입을 확대해 나가고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아시아 및 EU 등 시장접근을 위한 다변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변동성 확대

미·중 패권경쟁과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긴장, 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이란 강경책,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등 지정학적 변동성이 커짐으로써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무역 및 투자환경에 리스크도 확대될 것이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EU간의 갈등과 EU 폰 데어 라이언 2기 집행부의 대중국 및 대러시아 정책방향도 관전 포인트이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한국내 정치환경 변화도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급망의 변동성을 확대할 것이다.

시사점과 대응전략

-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다자주의 쇠퇴와 지역분쟁이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안보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중 간 상호압박과 보복 동향을 비롯하여 강대국간 거래 여건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민한 대응에 필요한 정책수립 및 조직개편 필요
- 산업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규제, 수출통제 및 공급망 안정성, 기술유출 처벌 등 정부의 정책 및 입법 체제 강화, 중층적인 대외협력과 체계적인 아웃리치 활동 필요
- 기업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제 하에 고위 경영자 주관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체제 구축 필요

3.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심화

미국 우선주의정책

상하원의 지원을 등에 업은 트럼프 대통령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달성하기 위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모든 수입상품에 대한 보편 관세 및 대중국 고율관세 부과,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 제조업 부활, 환율 개입,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친환경 정책 폐기, 무역협정 재협상 등 트럼프 후보가 대선 유세기간 중 강조한 공약들이 실현될 경우 세계 교역 질서에 큰 충격을 가할 것이며 2025년 중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다.

다자주의 쇠퇴와 무역갈등 심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들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교역상대국들이 맞대응하는 경우 지난 30여년간 자유교역의 틀을 제공한 규칙 기반 세계교역질서는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무력화된 WTO는 경제안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칙을 창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들간 무역분쟁 해소에도 실효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다자주의 쇠퇴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시사점과 대응전략

- 미국의 보호무역 및 일방주의 강화는 2025년 중 우리 산업 및 통상환경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전망
- 최근 급증한 대미 무역흑자 해소를 위한 전방위 압박, 중국의 우회수출방지를 위한 수입규제 강화, 대 중국 수출통제 강화, 미국에 투자한 배터리·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간의 2인3각 협력 체제 구축이 긴요

4. EU의 통상규제 강화

EU의 산업정책 강화

폰 데어 라이엔 2기 EU 집행위는 기존 EU가 표방했던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 지속가능하고 단호한(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통상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중과의 경쟁에 맞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배터리, 반도체, 수소, 희소금속 등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바이 유러피안' 정책을 통해 공공조달에서 역내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하고, 자동차·풍력 산업에서 친환경 철강 사용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역외보조금 조사강화, 수출통제, 역내 핵심 인프라·기술 등의 보호를 위한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조치 등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 가능한 통상정책과 적극적인 EU 역내 기업 보호 강화

EU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환경·노동·인권 등의 가치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 온 기초를 더욱 강화하고 구체화할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경우, 2026년 본격시행을 앞두고 좀 더 구체화된 시행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또한,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집행될 전망이다 공급망 실사지침과 강제노동 결부 상품 금지 규정도 2025년에 이행규정이 더욱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한 EU는 역외보조금 규정, 반강압법(Anti-coercion Instrument) 등 역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상대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2기 집행부에서 이러한 대응조치의 적극적 시행이 예상된다.

시사점과 대응전략

- EU의 강화된 환경·인권 규제 체제에서 적합성을 갖춘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EU 신규 규제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우리 기업의 유럽 투자 진출시 EU의 외국인투자 심사 및 역외 보조금 규제 요건 준수를 위한 면밀한 검토 필요

5.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글로벌 사우스, 독자적 지정학적 세력으로 부상

글로벌 사우스가 2025년에는 경제성장, 국제 정치에서의 영향력 증대, 그리고 지역적 연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통상질서에서 새로운 독자적 세력으로 입지를 굳힐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다양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들로 구성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서방 중심의 국제질서가 약화되면서 다극화되고 경쟁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서 BRICS+, 아프리카 연합(AU), ASEAN 등 협의체를 통해 주요강대국과 균형 있는 관계를 지속하고 남남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독자적인 지정학적 혜택을 추구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특히 미·중 전략 경쟁과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라는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주요 강대국간의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대러시아 제재에 불참하거나 상호 무역 결제에 달러 사용을 회피하는 등 나름대로의 정책적 자율성을 갖고 특정 진영에 편입되지 않는 거래적·실용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이러한 글로벌 사우스의 존재감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글로벌 사우스의 잠재력에 주목해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경제적 불평등, 인프라 부족, 높은 부채에 따른 재정 위기 등 도전과 제약이 있으나, 최근 수년간 젊은 인구에 기반한 노동시장 확장과 소비 수요 증가, 빠른 도시화, 녹색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자원 보유 등을 통해 지속적인 무역증가 및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자원·에너지 공급지, 제조업 투자처 및 주요 시장 등 공급망 다각화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은 글로벌 사우스를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글로벌 사우스 내에서도 인도와 중국 등 핵심국 간의 영향력 경쟁도 치열하다. 글로벌 사우스는 2025년에 전개될 글로벌 지정학적 지형 변화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될 것이다.

시사점과 대응전략

- 글로벌 사우스는 전자제품, 자동차, 의약품 등 한국의 신흥 수출 시장 확대 및 생산기지 확보와 자원 및 에너지의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개편 촉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이들 국가들과 경제적 기회 확대를 통한 상호보완적 동반성장 추구 필요
-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다양성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시장다변화, 공급망 및 자원 확보 전략, 기술 협력 등을 추구하는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에도 힘써 이들 국가들을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활용 필요
- 민간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정부에서도 2024년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나 2025년 개최를 추진중인 한·중남미 정상회의와 같이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민간협력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필요

6. 디지털 플랫폼과 AI 관련 규제 확대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이들에 대한 독과점 규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EU는 2023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여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을 제정하여 일찌감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의 선두주자로 나섰으며, 이른바 브뤼셀 효과에 따라 점점 많은 국가가 EU의 뒤를 이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로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빅테크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여 미국과 EU 간 통상마찰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국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미국 재계가 공식적으로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양국 간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관련 규제 증가와 통상 리스크 확대

AI 반도체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격전지로 부각되면서 AI 반도체 관련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수출통제, 투자심사 등 법적 규제를 더욱 확대·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22년 및 2023년 시행된 AI 반도체 및 관련 제조장비를 중심으로 한 수출통제에 이어 지난 12월에는 HBM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또한 외국기업 대미 투자심사에 AI를 국가안보 요소로 고려하고,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대한 AI 관련 투자를 금지하는 등 투자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반도체 소재인 갈륨, 게르마늄과 배터리용 흑연 등에 대해 수출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미국의 조치에 맞대응하고 있다. 한편, EU는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규제 법을 제정하여 이용을 금지하는 AI기술을 규정하는 등 높은 수준의 역내 사전규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처럼 AI를 둘러싸고 각국의 규제가 늘어나고 복잡해지고 있어 그 준수 관련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

시사점과 대응전략

-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국·내외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관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필요
- 수출통제, 투자심사는 물론, 다양한 AI 관련 규제가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규제 위반 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투자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준수 프로세스 마련 등 리스크 관리 긴요

7. 세계 기후통상정책 갈등 격화

EU와 대비되는 트럼프 2기의 전통 에너지 정책 부활

EU 집행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2025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에너지 독립과 전통적 에너지 산업 부활을 추진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토지 내 석유 및 가스 시추 허가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며, IRA상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 수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신의 대선공약인 '전기차 의무화 종식'을 추진할 것이며,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도 철폐 또는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주(州)별 정책에 따라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고 미국 내에서 탄소배출 문제와 무역장벽을 연결 짓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하여야 한다.

미국과 EU의 기후통상정책 갈등으로 인한 국제 논의의 불확실성

EU와 대비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통상정책 추진은 미·EU간 정책 충돌을 유발할 것이다. EU의 그린 보조금을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으로 간주하여 상계관세를 도입할 가능성도 크며, 저탄소 철강에 대한 미·EU간 논의에 있어서도 미국 232조 관세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면제 관련 합의 도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후대응 논의에서도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 EU의 상반된 입장은 2025-2026년 작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OECD의 탄소 감축 협력 포럼인 탄소감축포럼(IFCMA)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기후변화 대응은 미국의 정책변화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에서도 글로벌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며 기업들에게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과 대응전략

- 미국의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 감소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요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 대한 로비와 주(州)별 정책 수립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 필요
- 역외국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EU의 CBAM,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같은 기후통상정책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우리 기업들의 저탄소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필요
- 글로벌 기후통상정책 논의에 있어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적극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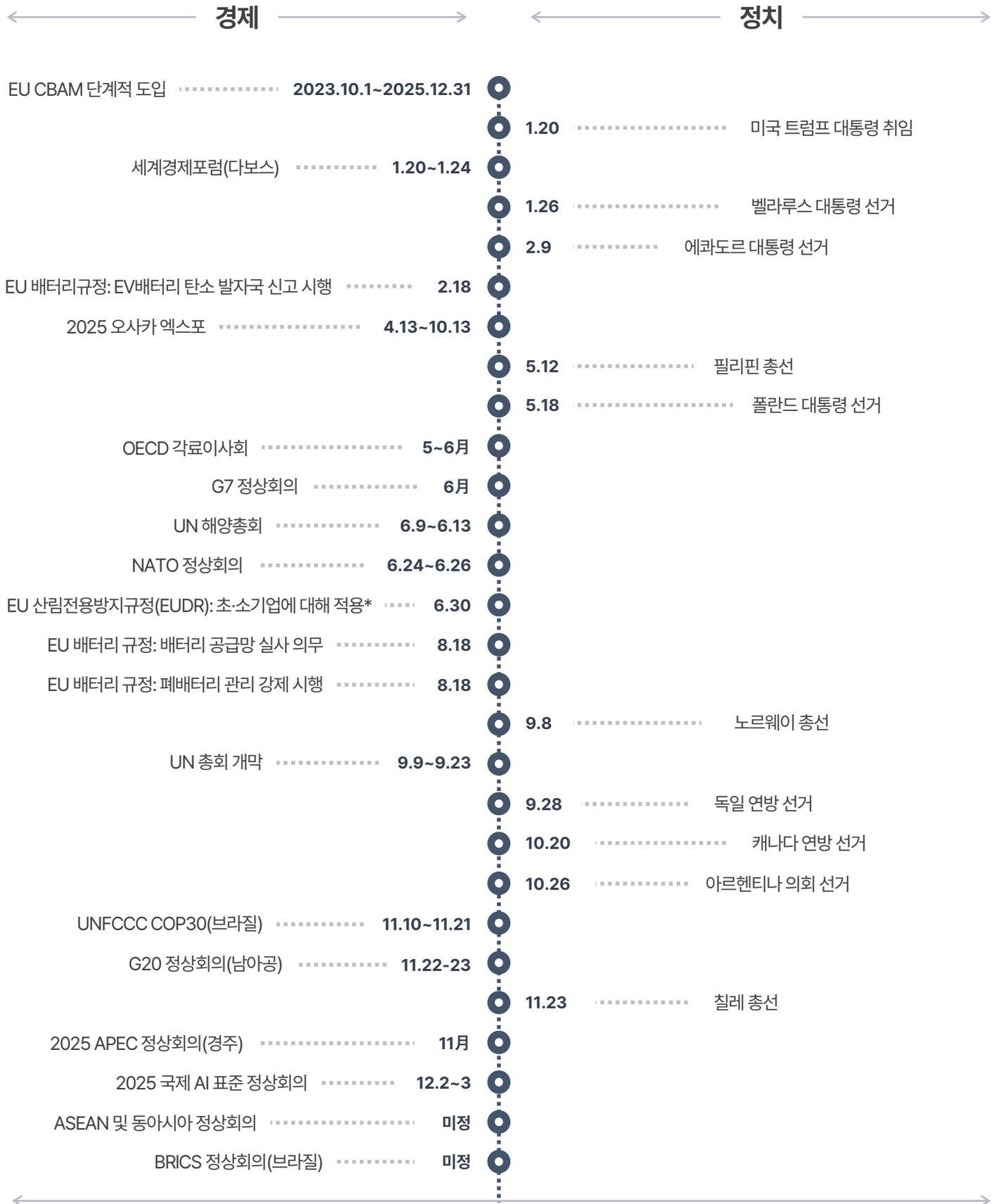
■ 주요 통상일지

날짜	내용
11.19	 미 재무부,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벌금 조항 등 최종 규정 발표
11.24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2035년까지 최소 연간 3천억 달러 규모 공공 재정 지원 합의
11.26	 EU, 중국의 유럽산 브랜드 반덤핑 조치 WTO분쟁해결절차 착수
11.26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 회담
11.29	 옹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 연임 확정
11.3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면제 기간 내년 2월까지 연장
12.1	 폰데어라이엔 2기 EU 집행위원단 공식출범
12.2	CPTPP 대만과 중국의 CPTPP회원 가입 불발
12.2	  인도네시아-캐나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
12.2	 특정 HBM제품 수출통제
12.3	 호주산 쇠고기 수입장벽 완전 철폐
12.3	 중국산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 등 이중용도품목 미국 수출 통제
12.5	 대규모 살림벌채 방지법 1년 연기 합의
12.6	 미국 방위산업체 12개사·경영진 6명 제재
12.6	  EU-MERCOSUR FTA 합의안 서명
12.12	 내년 1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 관세 50% 인상 발표
12.13	 한국산 대형구경강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발표
12.13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발표
12.15	CPTPP 영국 CPTPP 공식 가입
12.16	 제15차 대러시아 추가 제재안 발표
12.19	  한·네팔 무역촉진프레임워크 체결

■ 주요 통상일지

날짜	내용
12.20	 SK하이닉스에 6천600억원 보조금 지급 확정
12.20	 호주산 랍스터 수입 규제 해제
12.22	  한·호주 녹색경제동반자협약(그린 EPA) 체결
12.24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NDAA·국방예산법)법 발효
12.29	 미국·대만·말레이산 부틸알코올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12.27	 중국산 풍력발전 타워에 97% 반덤핑관세 부과
12.27	 '대만 군사지원' 미국방수권법 발효에 美방산업체 7개사 제재

2025년 세계 주요 경제 · 정치 일정



*12개월 전환기간 논의中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Brief 발간 목록

■ 2024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글로벌 수출통제 동향과 대응	신기훈 실장 (무역안보관리원)	2024.11
2	세계 3위로 떠오르는 인도경제: 사업기회와 도전	안충영 교수 (중앙대학교)	2024.7
3	글로벌 인공지능(AI) 규제 동향과 시사점 - EU,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고환경 변호사(광장) 이일신 변호사(광장) 강준모 박사(광장)	2024.4
4	[Special Issue Brief] 2024 미국 대선: 주요 관전 포인트 대선 · 의회선거 시나리오와 통상 리스크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4.3
5	2024년 7대 글로벌 경제통상 이슈와 대응방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4.1

■ 2023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국제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경쟁법 입법 동향: 미국과 EU의 사례 분석	정환 변호사(광장) 김영서 변호사(광장) 정문경 연구원(광장)	2023.10
2	EU의 新통상법 추진 동향과 우리의 대응	허난이 연구위원 박수령 연구원 문희은 연구원(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3.5
3	[Special Issue Brief] The Reorganization of Global Supply Chains in a Changing World	Sébastien Miroudot 박사(OECD)	2023.2
4	2023년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 2022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해외투자심사제도의 도입 추진 및 평가와 전망: 미국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고준성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2022.9
2	[Special Issue Brief]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허난이 연구위원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2.8
3	[Special Issue Brief]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해설 및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박정민 변호사(광장)	2022.7
4	대(對) 러시아 제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	이재원 선임전문관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2.5
5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2.2
6	EU 탄소국경조정세 (CBAM)의 시사점과 대응 방안	이상준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1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The U.S.-China Strategic Confrontation on Trade: How Supply Chains Became Strategic National Resources under Trump, and How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and Expand That Policy	J.Scott Maberry (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 LLP)	2021.7
2	CPTPP와 국영기업	정기창 외국변호사(광장)	
3	[Special Issue Brief] '디지털무역(Digital Trade)'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의 형성: 양자 '디지털무역협정'의 등장과 최근 논의 동향	곽동철 교수(경북대학교)	2021.5
4	미국과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동향과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응	설동근 변호사(광장) 이준용 외국변호사(광장) 김상민 변호사(광장)	2021.4
5	중국 수출통제법을 통해 본 중국 통상환경 동향	김윤희 박사(KOTRA)	

6	[Special Issue Brief] 브렉시트 이후 영국 및 EU의 대외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박성훈 교수(고려대학교)	2021.2
7	2021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방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1.1

■ 2020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Special Issue Brief] RCEP 서명의 의미와 시사점	강문성 교수(고려대학교)	2020.12
2	[Special Issue Brief] 바이든 당선자의 통상정책에 대한 워싱턴과 브뤼셀의 시각 • Trade Policy of the Biden Administration of the US and the Implications to the Korea-US Trade Relations • Biding Time for Biden's New Trade Agenda	Joel D. Kaufman 변호사 (Steptoe & Johnson LLP) 이호석 박사(ECIPE)	2020.12
3	The Reshuffle of GVCs in the Era of US-China Decoupling and COVID-19	Sébastien Miroudot 박사(OECD)	2020.10
4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Global Value Chain 현황과 변화 전망	이항구 연구위원(한국자동차연구원)	
5	USMCA 발효의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	강준하 교수(홍익대학교)	
6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중국의 외국인 투자제도	안유화 원장(중국증권행정연구원)	
7	[Special Issue Brief] The USMCA: An Introduction to the Rules of Origin for 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R.O. Cunningham 변호사 G.S. McCue 변호사 Z. Simmons 변호사 (Steptoe & Johnson LLP)	2020.7
8	Brexit: The imminent crisis in the EU-UK trade negotiations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이호석 박사(ECIPE)	2020.3
9	우리나라 기업지원프로그램의 보조금 특정성 사례분석 및 시사점	조영재 변호사(광장)	
10	2020년 글로벌 통상여건의 불확실성과 대응방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11	[Special Issue Brief] 미-중 경제 · 무역협정: 주요 내용 및 분석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0.1

■ 2019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Special Issue Brief]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맞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디지털세 관련 국제 규범 논의 동향 및 시사점	허난이 연구위원(광장) 박정준 연구원(광장)	2019.8
2	[Special Issue Brief]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우리기업의 대응방향	이재원 연구원(광장)	2019.7
3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미중(美中) 무역분쟁, 그 다음 수순은?	이재민 교수(서울대학교)	
4	미중(美中) 무역협상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장윤종 원장(포스코경영연구원)	
5	Trade Policy Implications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Sébastien Miroudot 박사(OECD)	2019.7
6	미국 보호무역조치의 새로운 무기(new weapon), 통화보조금: WTO 보조금 협정 합치성 분석을 중심으로	주현수 변호사(광장)	
7	BREXIT의 배경, 현황 및 전망	박성훈 교수(고려대학교)	2019.5
8	BREXIT에 대비한 "무역연속성협정": 영국-칠레 간 협정 분석을 중심으로	허난이 연구위원(광장)	
9	WTO 개혁 논의: 상소기구 개혁을 중심으로	김혜수 변호사(광장)	
10	CPTPP on the Go: Next Step is Enlargement	Shujiro Urata 교수(와세다대학교)	2019.1
11	The USMCA: What it Tells us about U.S. Trade Policy and What it Means for Korea	Richard O. Cunningham 변호사 (Steptoe & Johnson LLP)	
12	미국의 독자적 경제 제재와 기업의 딜레마	이현송 변호사(광장)	

■ 2018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Targeting China	Jeffrey J. Schott 박사(PIIE) Lucy Lu 애널리스트(PIIE)	2018.10
2	Moving from One Landmark to the Next: What the New EU-Japan EPA Means for Korea	이호석 박사(ECIPE)	
3	국제통상과 안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중심으로	정기창 변호사(광장)	
4	최악의 세계무역환경과 우리의 대응	박태호 원장(광장)	2018.7
5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규제 현황과 평가	최석영 고문(광장)	
6	EU의 무역구제규범의 현대화: 최근 규범 개정에 대한 분석 및 WTO 합치성 검토	허난이 연구위원(광장)	

- 법무법인(유) 광장 [홈페이지](#)에서 모든 이슈브리프 발간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